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God Granted What Was Requested



shoulder to shoulder

어깨를 맞대고 밀도 있게 둘러 앉아
복음의 생기와 은혜의 온기를 나누는
술한 특새의 흔적들

20+1차, 새로운 초심 특새를 맞아
서로의 폭은 더욱 좁히고
기도의 폭은 더더욱 넓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의 자리
그리스도를 닮은 기쁨의 우리

한 성도님이 은혜게시판에 올려주신 1차 특새 뉴스레터(소장용)

TODAY'S PRAYER

하나님과 뜨겁게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불을 붙여주사 응답의 하나님을 보이소서.

- 1 소망 없는 인생이 이번 특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받은 사명대로 밀도있게 인생을 꾸려가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2 세워주신 강사님(로버트 노리스 목사, 강준민 목사)과 담임목사님에게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사, 영가족들과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게 하옵소서.
- 3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가 '20+1'차 특새에 주시는 초심의 뜻심으로 정진할 때, 한국교회와 글로벌 파트너들이 부흥하는 거룩한 토대 삼아 주옵소서.

“불은 가장 높게 치솟을 때 가장 밝습니다.
그러나 잦아들었을 때 가장 뜨겁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재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특새 강단 아카이브

“Oh My God-!”
“몸의 열기를 따뜻하게 지킬려면
따뜻한 난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애즈버리 부흥을 묵상하며 (마태복음 5:6)

케빈 브라운 박사(애즈버리 대학교 총장)

제가 애즈버리 대학교에서 목격한 것은 이것입니다. 2월8일 예배는 어느 예배와 다르지 않았지만,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남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울림은 16일 동안 이어진 절박한 5만여 명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간증하는 모습들. 그곳에서 겸손과 긍휼, 사랑과 회개, 풀어진 속박과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한 기도와 삶을 바꾸는 헌신 등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기획된 일도 프로젝트도 아니고 전문 찬양팀과 유명한 설교자와 같은 것은 없었지만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너무 시장화되고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신뢰를 잃어가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애즈버리의 집회는 이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집회와 그 결과들이 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신음 (에베소서 6:18)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모든 크리스천은 영적 전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전지에 불침번 서듯이 그 연통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첫째 우리는 깨어 구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지 상황의 위키토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폭은 인격의 폭이며 기도는 나의 정체성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화려한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의 흘러 넘치는 은혜

박현웅 권사(1권사회 회장)



21년을 한결같이 특별새벽부흥회와 함께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안되어 처음 사랑의교회 제1차 40일 특새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 지금 제21차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믿음, 그 은혜에 반응하며 무엇이랴도 보답하고자 저의 작은 달란트를 드려 매주 꽃꽂이섬김부로 주님께 봉사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회, 은혜가 풍성한 특새를 더욱 가까이 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다짐해 봅니다.



홍정옥 권사(3권사회 회장)

2023년 기도의 지팡이와 함께하는 봄 특새의 은혜는 제자훈련과 함께 한 21년 전 40일 첫 특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동안의 기도 응답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특새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김정화 권사(5권사회 회장)



대주재이시며 또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권사인 저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감하시고 진동하시기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었다 선포하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설외숙 권사(2권사회 회장)

저에겐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새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봄 특새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를 보고 아멘 아멘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차 봄 글로벌 특새에는 나와 내 가정,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에 어떤 거룩한 대반전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매일 새벽에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순 권사(4권사회 회장)



지난 가을 특새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 봄 특새는 현장예배에 참석해 맘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리워렌 목사님과 김한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받은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4권사회,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4권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정애 권사(직장인권사회 회장)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특새, 은혜의 지성소를 허락하시고 무릎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기쁨과 환희의 송가를 올려드립니다. 특새기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21차 봄 글로벌 특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0+1차 특세의 열기로 이어진 7000 용사의 산기도



갈멜산 산상기도회 (23. 1. 14)



- 한 해를 시작하며 영적 기백으로 충전한 시간
-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곳

변화산 산상기도회 (23. 1. 28)

-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한 시간
- 변화의 은혜가 있는 곳

모리아산 산상기도회 (22. 12. 10)



- 익명에서 벗어나 호명의 자리로 나아올 시간
-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

갈보리산 산상기도회 (23. 3. 4)



- 피땀은 십자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시간

시내산 산상기도회 (22. 12. 17)



- 하이테크에서 하이티치로 전환한 시간
- 모세가 소명받고, 율법을 받은 산

감람산 산상기도회 (23. 2. 18)



- 예수님의 겹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한 시간

ISRAEL



황숙 권사(신림교구)

기도지팡이의 응답



박희옥 권사(기흥교구)

“생각지 못한 시련, 생각지도 못한 은혜”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갔던 지난 12월 21일. 심각한 대동맥박리로 대동맥 뿌리 부분 전체 인조혈관 대체, 허벅지 혈관을 이식하여 **우측관상동맥 우회술, 우관막 성형술**을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만은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닥쳐왔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쁜 일을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시시각각 점점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영가족들의 중보기도와 가족들의 절절한 기도**가 애타게 이어지면서 깨어나기 어렵다던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남편은 사요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었그제 외래로 만난 담당의가 어떤 의료진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시자 남편은 **하나님이 살려 주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함께 중보해 주신 영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꿈으로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다”

사랑의교회가 45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 집 장남도 79년생, 만으로 44세, 한국 나이로는 올해 45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19일 토비세 때, 지팡이 번호 2132번 호명하여 불린 남편이 지팡이 받기 하루 전 자다가 느닷없이 아들이 **승진되는** 꿈을 꾸었다고 별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 날 담임목사님께 **지팡이 번호가 호명된 것** 보니 예감에 좋은 일 있으리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닌 실제로 공학박사 연구원인 장남이 새해 P회사 부장으로 **승진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 45주년 되는 1.11일 큰 선물 받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토비세 산상기도를 통하여 **모든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를 올려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는 2023년 되게 하셔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믿음의 보고 올려드리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허락하신 주의 은혜, 생기있을때 축적하자

2023. 4. 12
04:30 am

5°

맑음
강수확률 0%

2023. 4. 13
04:30 am

6°

맑음
강수확률 0%

알림 [오늘의 기도주제: '하나님과 뜨겁게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불을 붙여 주사 응답의 하나님을 보이소서']

1. 강단초대

*오늘: 권사회 *내일: 제자 · 사역훈련생 임원

2. 감사소개

*오늘: 로버트 노리스 목사 (세계개혁주의연합회 이사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9)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끈질긴 통곡기도의 능력" (사무엘상 1:10~20)
*내일: 데이비드 브루스 목사 (전 빌리그래함 수석 목사)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사도행전 1:8~11)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끈질긴 감사기도의 능력" (다니엘 6:10)

3.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마세스타시티 지하 6,7층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 30분까지
- 서초현대주차장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 30분까지
- 국제주차장(구 더바인웨딩) 월-금: 3시~7시까지, 토: 5시 30분~9시 30분까지
- 서초고등학교 월-금: 4시~6시, 토: 이용불가. (*모든 주차장은 주차 가능시간 이후 출차시 유료입니다.)
- 버스 교회 출발시간은 6시 25분입니다.

4. 아름다운 땅 조식 오픈 (6:30~8:30, 오늘의 메뉴: 미역국, 세발나물전, 김치)

5. 은혜게시판 활용

특새 때 받으신 은혜를 "은혜게시판"에 남겨주세요. 201~400번 작성자께는 오늘 후집회 이후 응답을 확인하며 음료 "허락해"를 드립니다. 또한, "전.적.위.탁." 4행시 우수작 상품수령장소 남1층로비



2023 봄 글로벌 특새 출석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오르는 응답의 대장정

셋째날

오직 한 번 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은혜게시판 [뉴스레터에 소개된 은혜게시판 글을 작성한 성도님께 "전적위탁 기도의 지팡이걸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노하우> 유동선

<1차와 20+1차> 송효상

<오 마이 갓> 김지혜

'전.적.위.탁.' 4행시 장원급제

558. 김연정

전: 전새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특새!
적: 적재적소 맞춤형 은혜와
위: 위로부터 솟아 부어 주신
탁: 탁월한 은혜의 자리, 전참은 필수입니다.

584. 배진영

전: 전요.
적: 적적해요.
위: 위로가 필요해요.
탁: 탁! 하나님 생각이 나요.

509. 박현경

전: 전 특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적: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시기 전에는요.
위: 위기를 만나니 특새전참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탁: 탁! 맞기 전에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시길요.

442. 김선애

전: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적: 적당한 성전 뜰 신앙은 그만두고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강권하시는 주님!
위: 위에서 아래까지 성소 휘장을 찢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탁: 탁월한 주님의 위로와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중보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수작 50명

356, 360, 361, 367, 368, 369, 370, 372, 373, 375, 378, 379, 385, 390, 392, 396, 398, 401, 409, 417, 481, 484, 485, 490, 493, 499, 502, 503, 504, 507, 509, 510, 513, 514, 515, 516, 521, 528, 529, 533, 544, 551, 553, 558, 560, 573, 574, 578, 579, 582